

# 실크로드 문화 교류와 융합: 중국이슬람

권상우(Tabula Rasa College)

## 1.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 문화 교류

'실크로드'는 일반적으로 오늘날 중국의 서쪽 변경 지대와 인도 및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좁은 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인도와 중국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였고, 그 교역의 가교를 통해 유라시아의 모든 문화가 교류하고 융합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실크로드는 문화교류와 문화융합을 상징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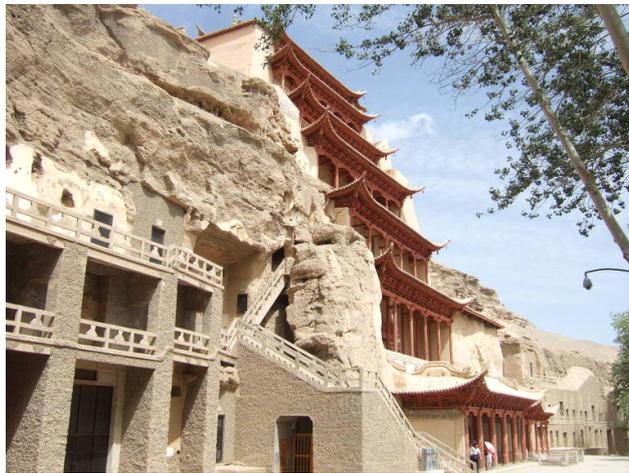


<중국 실크로드 지도>

실크로드의 대표적인 지역이 둔황(敦煌)과 신장(新疆)지역이다. 중국학자들은 둔황을 '인후(咽喉)'에 비유한다. 하서회랑을 거쳐 몰려드는 동방 문물이 이곳을 지나면 세 갈래의 길로 갈라져 빠져나가고, 반대로 그 길들을 거쳐 들어오는 서역의 문물은 이곳을 지나서야 동아시아로 전해지기에 '인후'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동서양 문화가 만나 융합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하였다. 현재 '동서(東西)'라고 하면 대개 동은 동양을, 서는 서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동서는 그 내용이 다소 다르다. 즉, 동은 동아시아 문명을, 서는 서쪽의 메소포타미아·이집트·그리스·로마·인더스 등의 여러 문명을 가리킨다. 따라서 '동서 문화의 교류'는 동아시아와 서쪽의 여러 문명 간에 이루어졌던 문화 교류를 말한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이며 정수일 교수의 스승인 지셴린(季羨林) 교수는 “세상에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광활한 지역을 아우르며 스스로 체계를 형성하고 지대한 영향

을 미친 문화체계는 중국, 인도, 그리스, 이슬람 문화, 이 4개뿐 다섯 번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 문화체계가 합류하는 곳은 단 한 곳, 바로 중국의 둔황과 신장 지역뿐 다른 곳은 없다”고 한 적이 있다. 지교수가 말한 바와 같이 둔황과 신장은 바로 외래문화가 동북아시아에 진입하는 관문이며, 이 관문에서 여러 문화가 교류하고 융합하는 곳이기도 하다. 둔황은 한당(漢唐) 시기 실크로드에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3개 대륙을 연결하는 중심지가 되어 동서교통을 잇는 지역이다. 13세기 고대의 해로가 개척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육상교통로는 중국과 서방을 잇는 주요 통로였고, 둔황의 전략적 중요성도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었다.



<둔황 막고굴>

둔황은 기원전 117년 한 무제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이곳에는 중국의 경계 밖으로 나가는 두 개의 관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남쪽의 양관을 나서면 천산남로, 북쪽의 위먼관을 나서면 천산북로로 이어졌다. 동서 물품 교역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불교 승려들이 불교 경전을 구하러 서역을 왕래하는 등 수백 년 동안 서역과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통로로 이용되면서 둔황에는 수백개의 석굴로 이루어진 막고굴(莫高窟)이라는 불교 유적이 형성되었다.

막고굴 각 석굴마다 빈틈없이 그려진 벽화들은 불교미술의 뿌리로 일컬어질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미술관 중의 하나', '세계 최대의 화랑', '사막의 위대한 미술관' 등으로 일컬어진다. 그리고 장경동이라 불리는 제17굴은 송대(宋代)까지의 경전, 회화 및 문서가 보관되어 있던 곳으로 혜초의 왕오천축국전도 바로 이곳 제17굴에서 발견되었다. 둔황에는 불교 유적뿐만 아니라 기독교, 마니교 등 다양한 문명의 유물이 혼재해 있다.



<대진경교유행중국비>



<1956년 불국사에서 발견된 석제 십자가>

실크로드에서 불교문명이 사라지게 된 원인은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던 당나라의 멸망과 이슬람이란 새로운 종교의 도래했기 때문이다. 무슬림은 형상예술(특히 사람의 모습을 묘사한 불상, 예수상 등)을 금기시했기에 불교문화는 쇠퇴하게 되었다. 수많은 불상조각과 벽화가 파괴되고 불탑과 사원은 무너졌다. 당대에 비해 서쪽 영토를 잃은 명대(1368~1644)에는 실크로드가 거의 방치된 상태에서 서방과의 접촉은 끊어지고 자폐의 길을 택함에 따라 둔황 및 타클라마칸 사막 일대는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지게 되는데, 20세기 초 서방 탐험가들에 의해 발견되기까지 사막의 모래 속에 묻힌 상태로 남겨졌다.

둔황은 서방으로 뚫려 있어서 서쪽으로는 서역과 연결되지만 동쪽으로는 장안과 낙양에 이를 수 있었으며, 그보다 더 동쪽으로 가면 한반도아 일본에 이를 수 있었다. 둔황은 서방 세계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점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막고굴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인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막고굴 벽화에는 모자에 새의 깃털을 꽂은 조우관(鳥羽冠)을 쓴 ‘고대 한국인’의 모습이 담긴 벽화들이 있다. 당시 고구려·백제·신라 사람은 새의 깃털이나 그 모형을 모자에 부착했고 외국에 가는 사신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도 조우관을 고대 한국인의 상징처럼 생각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서에 이런 사실이 기록돼 있다. 쌍영총과 무용총 등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조우관을 쓰고 말을 달리는 모습이 등장한다. 둔황의 조우관을 쓴 인물상을 통해서 둔황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2013. 07.18)



(좌) 막고굴 121굴의 고구려인상. (우) 중국 당나라 고종의 아들 이현의 무덤에서 나온 ‘예빈도’.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조우관을 쓴 신라 사신으로 추정.

서역에서 유입된 문화는 동아시아 문화와 교류하면서 융합되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를 불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도와 서역 각지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전법승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지에서 인도로 불교의 새로운 가르침을 구하러 갔던 법승들이 불교를 중국에 전한 주역들이다. 불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동북아시아에 유입된 이후 동북아 불교로 발전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도 전해지면서 동북아시아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슬람 또한 중국에 유입되면서 현지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이슬람은 씨앗이었다면, 중국 전통 문화는 그 씨앗이 자라는 문화토양이 되었다. 이슬람의 씨앗이 중국 문화의 토질 속에서 성장하고 자란 것이 바로 ‘중국이슬람’이다.

## 2. 위구르 무슬림과 회족 무슬림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그 중에서 무슬림 인구는 3천만 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지만 중국 전체 인구를 고려한다면 이슬람은 다수의 종교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무슬림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종교임이 틀림없다. 중국에서는 이슬람을 회회교(回回教), 청진교(清真教), 대식교(大食教) 천방교(天方教), 천당교(天當教), 목

교(穆教) 등으로 불렸으며, 중국 무슬림은 중국의 다른 민족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 이들 중 가장 거대한 무슬림 집단은 회족이다. 이들은 중국 전역에 널리 퍼져 살고 있다. 현재 회족 무슬림들은 중국의 한족 문화 및 한족 공동체에 상당히 동화되어 있으며 다른 무슬림 집단들과 달리 상당한 자유를 얻고 있다.

회족 다음으로 거대한 무슬림 집단은 위구르족이다. 이들은 주로 중국 북서부의 신장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위구르족은 투르크계 계통의 민족으로서 이슬람이 전파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였다.

이들의 문화는 중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며, 언어도 위구르어를 사용하고 있다. 회족이 오랜 기간 한족과 동화되면서 이질감 없이 중국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었던 반면 위구르는 문화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연계된 상태에서 이슬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화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슬람 민족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중국 정부의 동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는 계속된



**이슬람서원의 오성홍기**

불화가 있었으며 위구르족은 자신들만의 독립된 국가를 세우기를 바라고 있다. 신장에서 들려오는 정치적 갈등과 긴장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의 탄압은 종교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중국 정부는 공산당의 기존 정책을 중국 무슬림에게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수용할 경우에는 이슬람을 인정한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이슬람의 이슬람 풍습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들의 고유한 종교 신앙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국 무슬림의 역사가도 최근 중국 정부의 무슬림 탄압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전개 되었다.

### 3. 이슬람의 유입 과정

이슬람이 중국에 최초로 전해진 시기에 관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구당서(舊唐書)』, 「대식전(大食傳)」에 근거해서 중국과 아랍-이슬람 국가 간의 최초의 공식적인 접촉인 당(唐) 영휘(英徽) 2년 즉 651년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슬람과 중국의 공식적인 접촉은 이 당(唐)나라 영휘(永徽) 2년(651)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중국과 아라비아 간에는 실크로드를 통해 소규모의 육로교역과 함께 발달된 항해술로 인해 해상교류도 상당히 활발하였다. 중국

에 도래한 최초의 아랍 사절단은 정통 칼리프 시대 (632-661년)의 세 번째 칼리프인 오스만(Othman Ibn Affan: 644-656)이 영휘(2년) 당의 수도 장안에 들어와서 고종을 알현하고 아랍의 정황과 이슬람에 대한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중국 최초의 이슬람사원(시안)**

중동 지역은 이슬람이 아랍지역에서 등장해 인접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던 시기이다. 아랍이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페르시아와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아랍이 우세하자 궁지에 몰린 페르시아가 당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였으나 당나라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당나라는 아랍의 강성함을 인지하고서 아랍에 사신을 보내 그쪽 상황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그 이후에 아랍 사신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아랍 이슬람과 중국이 접촉하게 시작하였

다. 중국 역사서 기록에 따르면, 651-798년 사이에 39회 이상 아랍사절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한다.

그러나 위의 방문은 아랍 대신의 공식적인 방문이며, 또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나 민간인의 중국에 방문한 것은 이보다 이를 것으로 본다. 중국 무슬림 사이에 회자되는 구전 전승은 6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전 전승에 따르면 무함마드의 외숙부이자 카디샤아 전투의 사령관인 사드 빈 아부 와카스(Sad Bin Abu Wakkas)에 의해 이슬람이 중국에 전래되었다고 한다. 명말청초(明末清朝) 무슬림 학자인 유지(劉智)는 그의 저서인 『至聖實錄年譜』에서 와카스 장군의 중국 정착설은 중국 학자와 서구 학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있다. 유지에 따르면, 와카스는 611년과 632년 두 차례에 걸쳐 세 사람의 사절과 함께 도착하였고, 이슬람을 전도를 한 뒤 광주에서 죽었다고 한다.<sup>1)</sup>

중국 회족 무슬림인 학자 馬天榮은 632년 경에 사드 레비드(Sad Lebid)라는 무함마드의 친구가 중국에 와서 선교활동을 했다고 한다. 그에 말해 따르면 이슬람 초기 메카의 지배 부족인 쿠레이쉬족에 의한 극한 박해를 피해 백여 명의 무슬림들이 흥해를 건너 이디오피아로 이주하였다. 그 중 일부는 그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드 레비드와 함께 다른 생활 근거지를 찾아 떠났다고 한다. 당시 아랍인들이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절풍을 이용해 걸프해를 출발하여 동진하여 당시 세계 최대 자유무역항의 하나인 중국 남단 천주에 도착하였고, 그곳에 정주하고 있던 비무슬림이 아랍인과 융화해 이슬람을 전파했다고 한다. 이때가 당이 대식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기 20년 전이라고 한다.

1) M.Broomhall, 1910. p.p. 61-80

중국에서 초기 이슬람 전래와 관련된 많은 구전 중에 위에 언급한 두 구전은 오늘날까지 무슬림들 사이에 회자된다고 한다. 비록 구전의 신비성을 증명할 사료가 없지만 양자 간의 공식적인 접촉이 있기 전에 민간 교류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슬람이 시작되기 이전에 중국과 아랍은 육상과 해로를 통해 교류해 왔으며, 7세기 초에는 상당한 교류가 있었다. 중국을 무함마드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의 하디스(언행록)에는 “모든 무슬림의 의무인 지식 탐구를 위해 필요하다면 중국에까지 가라”는 기록이 있다.

무슬림이 중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중국 현지인은 세속적인 측면에서 이슬람교를 살피고서 이슬람교를 종교가 아니라 제도나 법률로 이해했다고 한다. 당시 중국인들은 이슬람교를 불교, 도교, 경교, 마니교 등 종교와 다른 유형으로 생각했다. 실제로 이슬람이 형성되고 아랍 제국이 형성될 시기에 이슬람의 사회정치적 작용이 종교적 작용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꾸란에도 낙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한 현실 세계를 개조하고 건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슬람은 교의, 신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정치, 윤리 등의 규정 또한 있다. 이슬람은 이러한 세속적인 생활을 중시한다. 그래서 중국인은 이러한 생활 방식을 목격하고 이슬람을 법이나 제도 정도로 생각했다.

이 무렵 무슬림이 중국에 정착하는데 영향을 준 큰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751년의 탈라스 전투와 755-757년의 안록산의 난이다. 탈라스 전투에서 당시 세계 최강을 닦아 두던 중국의 당과 이슬람권의 아바스 왕조가 충돌한다. 당나라가 서역의 길목을 차지하자 당나라에 의해 서쪽으로 도망간 유목 민족들이 이슬람 제국에 복수를 요청하였다. 이슬람 제국은 이를 구실로 삼아 당나라를 공격하자 고구려 출신 중국 장수 고선지가 이에 맞섰다. 양군은 탈라스 강가에서 5일 간의 싸움을 벌였다. 당나라는 군사수가 이슬람군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고, 당나라 군대에 속해 있던 돌궐이 갑자기 당나라를 배신하면서 당나라는 2만여 군사를 뺏기는 참패를 당하였다. 중국은 이 전쟁 이후에 서역 지배권을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중앙아시아는 빠른 속도로 이슬람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아랍과 중국과의 공식적인 관계는 무너졌지만 양국 간의 상호교류는 더욱 촉진되었다. 중국에 포로로 잡힌 아랍계 무슬림들은 장안으로 압송되어 그곳에 안착하면서 이슬람 문물을 중국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이슬람 제국에 포로로 잡힌 중국인 중에는 종이 생산 기술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로 인해 종이의 제조법을 아랍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다. 처음으로 제지 공장이 세워진 곳은 757년 사마르칸트였다. 당시의 아랍 세계에서는 주로 양피지를 사

용하고 있었으며, 이집트의 파피루스나 중국에서 수입된 종이가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 이후 795년에는 페르시아의 바그다드에 제지 공장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사마르칸트의 종이가 명성을 얻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페르시아의 왕이 중국에서 직접 제지공을 초청하여 세우기도 하였다. 그 뒤에 다마스쿠스에도 제지 공장이 세워졌으며, 900년에는 이집트에, 11세기에는 아프리카의 북부와 지중해 연안에까지 제지술이 전해졌다. 유럽에서도 에스파냐를 시작으로 종이의 제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지법의 확산은 이슬람권의 문화 발달 및 근대 초 유럽의 인쇄술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탈라스 전투 이후 무슬림들의 중국 안착에 기여한 또 다른 사건은 안록산((安祿山)의 난이었다. 당 현종 (玄宗)은 초기의 선정과는 달리 양귀비에 빠져 정치를 등한시하면서 지방의 절도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면서 국정이 문란하게 되었다. 이런 기회를 틈타서 당시 세 절도사를 겸하던 안록산이 755년 범양(范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수도 장안이 함락되자 현종은 촉(蜀)으로 피신하여 그 곳에서 세자를 황제로 세웠는데, 그 황제가 당 숙종이다. 숙종은 위구르와 압바스 왕조의 칼리파 아부 자파르 알만수르(754-775)에게 원병을 요청하였고, 칼리파가 원병을 지원하면서 안록산의 난을 진압할 수 있었다. 숙종은 장안을 회복한 후에 이슬람 군인이 중국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였고, 중국 여인과의 결혼도 허용하였다. 이들이 오늘날 중국 무슬림의 선조이며, 이들에 의해 이슬람문화와 종교의식이 중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슬람이 중국에 최초로 소개된 시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나라 초기인 7세기 중엽이다. 이때부터 육로로는 지중해를 기점으로 시리아-페르시아-중앙아시아-신장(新疆)-돈황(敦煌)-장안(長安)-낙양(洛陽)을 통해 중국 내륙으로 유입되었다. 또한 해로를 통해 광주(廣州), 천주(泉州), 양주(楊洲) 등 동남부 해안에 진출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 동아시아 최대의 국제 무역항이었던 광주에는 7세기 초부터 많은 아랍 및 이란계 무슬림 상인들이 자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거주하였다. 광주(廣州)항에는 걸프해에서 당도한 무수한 선박들이 향료 및 회귀물자를 산더미처럼 적재한 채, 6-7丈 거리의 앞바닥에 정박하고 있었다. 당. 송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국을 내왕하는 무슬림들의 숫자가 증가하였고, 장안의 동시와 서시에는 아랍. 이란계 상인을 주로 지칭하는 호인들이 시장바닥에 가득하였다고 한다. 장안에는 또한 ‘호점(胡店)’, ‘胡邸’라 불리는 특별상점이 있어 금. 은. 보석, 상아 서각(犀角), 향료, 유리제품, 진주 등 아랍. 이란 상인들의 교역품이 판매되었다고 한다.(『舊唐書』, 「西域傳」卷 198)

광주뿐만 아니라 천주 양주 항주 등의 항구도 당시 중국의 공식적인 대외무역항으로 지정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중국 동남부 해안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그들은 종교적 관습과 의무를 보존하기 위해 모스크를 건립하고, 중국 조정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번방이라는 특별자치구에 거주하는 특권을 누렸다. 중국에 온 무슬림들 중 일부는 중국인과 함께 살았지만, 절대 다수는 번방(蕃坊)에 살았다. 그들은 중국인과 결혼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의 분쟁에서 그들 본국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종교적 활동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어 재산을 증식한 부호들을 배출하였고, 중국문화를 습득하여 관리로 출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슬림이 중국에서 무사히 정착하였지만 황소의 난으로 인해 심각한 시련을 겪게 된다. 조주(曹州) 출신의 소금 장사인 황소는 과거시험에 여러 번 낙방하여 관리로 나아갈 기회를 잃자 876년 당시 각지에서 반란으로 혼란한 틈을 이용해 수해와 폭정으로 압박받던 농민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킨다. 그의 무리는 강서의 여러 주를 탈취하고 복건을 약탈하였으며, 879년 남하해서 약탈과 살육을 자행하였다. 특히 광주를 중심으로 집단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던 아랍. 이란계 무슬림들의 상당수가 살해당했다. 이때 그들이 살해된 것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은 아니다. 그들이 외국인으로서 부를 축적하고 중국 조정의 비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서민층의 비난과 타도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반란으로 광주에서만 10만 이상의 외국인이 살해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광주 지역의 외국인 대부분이 아랍. 이란계 무슬림들이었다고 한다.

이때 무슬림에게 가져다 준 참혹한 시련은 청나라가 흥기하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당말 이후 중국 서민의 이러한 외국인 배척 분위기로 인해 일부는 인근 국가로 피신할 수 있었으나, 중국에 남아있던 무슬림은 생명보존을 위해 자신을 숨기고 중국인으로 행세하는 길을 택했다. 그들은 고유한 관습을 버리고 중국 성을 취하게 되었다. 이로써 무슬림은 급격히 중국화가 이루어졌다. 무슬림의 중국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어 이슬람의 종교적 정체성은 미미한 외관의 흔적을 남긴 채 중국문화와 혼화되었다. 결혼과 장례와 같은 풍습에서는 약간의 차이밖에 없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음식과 신앙의 문제였다. 따라서 중국이 무슬림들은 표면적이고 유사한 요소는 과감히 중국화하고, 내면적으로 이질적 요소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 1) 원대(元代) 무슬림

몽골제국이 중원을 차지하면서 단순한 유목민 국가 체제로서는 이 광대한 영토를 통치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면서 색목인의 도움을 필요하게 되었다. 색목인은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및 페르시아계 무슬림 등이 해당된다. 색목인들은 국제교육의 경험과 그들의 선진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몽골이 중국을 지배하는데 협력자로 등장하게 된다.

원조는 무슬림들을 중용하면서 자신들의 통치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원조비사(元朝秘史)>라는 몽고역사서에서는 '회회'를 상업으로 주로 하는 민족으로 번역하였다. 회족의 상업 활동은 원나라 초기의 사회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납부한 관세와 기부한 물건이 원정권의 중요한 재원이 되었

다. 원대 회족은 경제적인 능력에 근거해 관료로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무슬림들은 율법, 제정,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화폐정책 조세징수, 경기활성화 업무를 담당하였다.

몽골인만이 독점하던 원대 지방 통치관에 예외적으로 무슬림들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원조의 도움 하에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누렸다. 원대 중국에 거주하던 무슬림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 한 부류는 중앙아시아나 이란에서 유입된 상인 출신들로서 경제적 경륜을 인정받아 원나라의 조세징수관이나 재무관리로 활동하였다. 둘째는 몽골이 이슬람 세계의 정복지에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징발한 기술자, 장인, 예술가들로서 강제로 중국에 거주하게 된 경우이다. 셋째는 원나라 이전부터 중국에 살면서 국제무역에 조사하던 무리이다. 이들 중 세 번째 분류가 회족이 된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피지배 다수 민족에 비하여 몽골의 우대 정책으로 크게 번영하였다.

원의 통치자들은 기본적으로는 종교 포용과 신앙 자유 정책을 시행하였다. 칭기즈 칸은 어릴 때에 巫俗적 분위기에서 자랐지만 특정한 종교 의식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는 종교를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그가 제정한 법률에서도 특정한 종교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려하였고, 각 종교의 신앙을 허용하면서 각 종교에 대해 존중을 표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가 아랍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무슬림을 대학살을 가하고 모스크에 들어가 쿠란을 불태우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종교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의 후손들 또한 특정한 종교를 통치이념을 삼지 않고 각자가 좋아하는 종교를 신봉하였다. 쿠빌리아 칸은 불교를 신봉하였지만 타종교를 배척하지 않았다. 그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불교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예수, 모세, 무하마드, 석가모니 등을 사대 성인으로 칭하면서 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모두에게 공경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원조의 종교 포용정책으로 인해 이슬람은 중국 전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이슬람의 전파는 불교와 달랐다. 불교는 교의와 경전을 통해서 전파되고 발전되었지만 이슬람은 무슬림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 무슬림이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그 지역에 이슬람도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슬람의 발전과 확장은 무슬림이 전국 지역에 퍼진 것과 관련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대에서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회족 관원으로 총당되어지면 이슬람 또한 중국 전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청진사가 중국 각지에 세워지게 되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청진사가 처음 건립된 것은 원조 때는 아니다. 당송(唐宋)시기에 이미 청진사가 건립되었지만 당시의 청진사의 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장안이나 해안 지역의 무슬림 자치구역인 번장에서만 건립되었다. 그러나 원대에 무슬림이 각지에서 활동하였기에 중국 각지에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었다.

이슬람 사원은 무슬림의 중요한 종교 활동 장소이다. 원조 이전까지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명칭은 통일적이고 고정된 명칭이 없었다, 이슬람 사원은 통일된 명칭이나 고정된 명칭이 없었다. 당조(唐朝)에는 ‘예당(禮堂)’으로 불렸으며, 송대(宋代)에는 ‘사당(祀堂)’, ‘예배당(禮拜堂)’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원조에는 ‘회회사(回回寺)’, ‘회회당(回回堂)’라고 불렸으며, 일부 사원에서는 ‘진교사’, ‘청수사’라고 불렸다. 원대 이슬람 사원은 종교 활동 장소일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활동의 중심 장소가 되었다. 중국 무슬림은 이슬람 사원에서 아침과 저녁에 알라를 향해 기도하기도 하였지만 군주의 장수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원나라는 모든 종교에 대해 관용정책에 따라 무슬림들의 종교행위와 관습을 인정해 주었다. 그래서 무슬림은 그들의 종교 자치 구역 내에서 외부의 간섭 없이 이슬람법과 고유한 관습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치 구역 내에 모스크를 세우기도 하였다. 그들은 할레, 단식, 돼지고기 금기, 이슬람법에 의한 가축 도살 등을 실시하였지만 원나라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몽골어나 중국어 사용을 강요받지 않았으며, 그들의 거주 지역에서 아랍어나 페르시아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었다. 이슬람세계에서 이주하여온 무슬림들은 천문학, 대수학, 물리학, 의학 등의 이슬람 학문을 중국에 소개하여 중국의 학문적 지식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원나라가 무슬림을 지지하면서 이슬람은 중국의 원주민에게도 확산되었다 중국 전 지역에 이슬람이 전파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한족이 이슬람에 귀의하였으며, 이슬람세계에서 온 무슬림들과 혼합되어 회족으로 취급되었다. 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다른 소수민족과는 달리 혈연적으로 형성된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이슬람 문화를 공유하는 무슬림을 말한다. 그러나 원대에는 중국인의 이슬람화가 중국의 이슬람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았으며, 외부세계에서 들어와서 중국에 정착한 무슬림과 그 자손을 중심으로 이슬람이 확산되었다. 한편 많은 무슬림이 원나라의 도움으로 각종의 특혜를 누렸고 원나라의 지시에 따라 징세와 같은 업무를 중국인들에게 가혹하게 실시하면서 중국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였다. 원조가 멸망한 후에는 중국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다.

## 2) 명청(明清)시대 이슬람

명나라 영락(永樂)대제가 사망한 직후에는 명나라의 대외정책은 보수주의와 쇠국정책으로 돌아섰으며, 국가 정책은 내치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 시기에 명나라 관리들은 무슬림을 의미하는 후이(hui, 回)라는 글자에게 개를 나타내는 견(犬)을 어근으로 첨가시켰다. ‘回’ 자는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중국무슬림을 회족이라고 부를 때 回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 중국 지역의 무슬림이 겨울 무렵에 아랍 지역으로 떠났다가 돌아온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알라신으로 회귀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전의 회자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명나

라 정부 관리들이 회자에 견자를 붙이면서 무슬림을 경멸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개를 나타내는 어근인 犬과 곤충을 나타내는 어근인 蟲은 중국인들이 중국 내에서 또는 국경 부근에 거주하는 한족이 아닌 야만인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어근들이지만 특정 인종에게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은 무슬림이 유일한다. 한족 관리들이 무슬림을 탄압하였지만 그들은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무슬림들도 중국문화의 테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았으며, 가능한 중국문화를 수용하려고 하였다. 한편, 폐쇄적인 사회분위기는 중국내부의 무슬림이 외부의 무슬림과의 접촉을 단절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의 무슬림들의 태도와 그들의 처한 환경은 비록 어려웠지만 큰 위기 없이 그들이 중국사회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중국 문화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날 수 없었고, 가능하면 중국 전통 문화를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명나라 무슬림은 漢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때는 원대와는 달리 무슬림끼리만 살던 생활방식을 벗어나 비무슬림 생활 지역에서 살기 시작했고, 그들의 의식주가 이슬람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한화(漢化)되기 시작하면서, 무슬림들은 한족(漢族)의 여성과 결혼하고 한족의 아이를 입양하기도 하였고, 한족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 등 중국에서 무슬림의 수도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문화적 환경에서 무슬림들의 외모나 문화가 점차적으로 한족과 유사하게 되었다. 그 이후 무슬림들을 더 이상 ‘아랍인’, ‘야만인’ ‘외국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回族(회족)’으로 칭하였다.

중국의 무슬림들은 명나라 때 가해지기 시작한 규제나 억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보존하였으며,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그 결과 명나라 말기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적 분위기에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 무슬림 지식인들이 새로운 이슬람 문학 장르를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사례는 뒤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이슬람에 관한 경전을 유교, 불교, 그리고 도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쉽게 풀이하여 중국어로 저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신봉하는 이슬람을 ‘清真教(청진교)’라고 불렀다. ‘청진(清真)’의 의미에 대해 마덕신은 ‘淸’을 ‘극기복례(克己復禮)’로 ‘眞’을 ‘復理’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즉 ‘청진’은 자신의 사욕을 극복해서 천리(天理)를 회복하다는 의미이다. 이 의미는 사욕을 극복해 천리를 회복하고자 한 유교와 매우 유사하다. 이 무렵부터 중국무슬림 학자들에 의해서 이슬람과 유교를 결합시키려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동관청진대사(외관)



동관청진대사(본전)

1644년 명이 멸망하고 만주족이 지배한 淸조가 들어서게 되었다. 청은 영토와 인구 면에서 엄청난 확장과 팽창을 이룩한 시기이었다. 만주족의 청나라는 몽골족의 원나라와 마찬가지로 한족이 아닌 민족이 지배한 제국이었다. 청나라 초기에는 정치를 안정시키고 민족 정책을 제정하면서 무슬림에게는 청나라의 법률 제도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무슬림의 종교 활동을 인정해 주었다. 명나라와 달리 청나라는 중국무슬림들에게 이슬람 종교와 문화의 본거지인 아랍이슬람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였다. 중국무슬림들은 메카로 순례를 떠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슬람 세계의 주요 학문 중심지에서 이슬람 종교와 문화를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 일부 회족 무슬림 학자들이 이슬람 세계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귀국하자마자 주요 이슬람 관련 서적들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이슬람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때 馬德信(1794-1874)은 실제로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에 10여 년 동안 여행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종교 체험뿐만 아니라 서구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습득한 후에 중국으로 돌아와서 유학의 개념과 술어로서 이슬람을 번역하면서 양자의 사상을 결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청나라가 중국무슬림에게 아랍 지역을 방문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탄압하기도 하였다. 중국 북서부 지역의 무슬림 공동체에서는 무슬림들과 청나라 지방 관리들과 잦은 충돌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중국무슬림들이 이슬람세계에서 새로운 정통 이슬람 지식을 배운 후에 귀국하여 이슬람을 더욱 전파하고자 했던 것이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청조는 무슬림 공동체 간 불화를 조장하였고, 무슬림들 내부 문제에도 개입하였으며, 무슬림 밀집 지역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대규모 소요와 폭동이 발생하였다.

17-18세기 중국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한족 중국인들이 국경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남서부 국경지역에 위치한 운남(雲南)성으로 이주하였다. 그런데 이 지역에 한족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원주민 그리고 이 지역에 오랜 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회족 무슬림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당시에 거주하던 회족 수는 대략 100만 명 정도이었다. 한족 이주자들은 원주민과 회족을 멸시하였다. 당시 회족은 법적으로 한족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

했으며, 경작지와 농지를 모두 몰수당하기도 하였다. 새로 정착한 한족과 회족과의 충돌이 발생하자, 중국무슬림 지식인들이 한족 지방 관리들에게 항의하였다. 하지만 회족 무슬림과 한족 이주민 간에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한족 지방 관리들은 한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화가 난 회족 무슬림들은 베이징으로 사절단을 파견하여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족과 회족 무슬림 사이의 갈등이 악화되고 쿤밍에서 무슬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탄압과 학살이 자행되자, 중국인 무슬림 학자들은 이슬람의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1865년 운남성 북서부에 설립된 달리 술탄국은 16년 간 존속하였다. 중국 황제는 주요 도시의 무슬림 반란을 진압한 후 군대를 운남성에 총집결시키고, 이 지역의 무슬림들에 대해 대대적 학살을 자행하였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 지역의 무슬림들 중 대략 60-85%가 살해되었다고 한다. 이후 청조는 중국무슬림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규제조치를 강화하였다. 통제 강화로 운남성의 무슬림들은 도시 내에서 거주할 수 없었으며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개인 재산, 농장 그리고 학교와 모스크 등 공공재산도 모두 몰수당했다. 당시 중국 한족들은 중국무슬림들이 억압과 탄압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했던 행동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이들에게 내재된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이미지로 해석하였다.

#### 4. 중국이슬람- 이슬람 경전의 한문 번역

원대는 중국무슬림이 중국 전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명청 시기에 중국무슬림이 비난과 박해를 받던 시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무슬림은 중국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당교육을 통해 이슬람 지도자가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이슬람에 대한 이해 수준은 크게 높지 않았다. 명나라가 폐쇄적인 외교 정책을 펴면서 중동 지역의 무슬림과의 교류가 단절되면서 중동 지역 이슬람으로부터 이슬람 교의를 배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호휘원은『천진석의』<서문>에서 그 당시 중국무슬림의 이슬람에 대한 이해 정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시의 무슬림은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그들이 오래 동안 중국에 거주하면서 이슬람 교의는 대대로 입으로만 전해지면서 진실한 도리를 상실하였다. 그 당시 무슬림 대부분 교의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중국 무슬림은 經으로 교리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오히려 갈팡질팡하면서 헤매고 있다. 자신의 입장도 흔들려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무슬림 지식인들이 의심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교학을 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이슬람 동포를 만났는데, 10명 중에 5.6명이나 이슬람의 행위방식에 대해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다. 재능이 뛰어난 소수 사람들은 이슬람의 지식을 조금 배우고 자신의 이해에 근거해 종파의 스승(宗師)으로 자칭하고 있었다.<sup>2)</sup>

당시의 무슬림은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판 이슬람 경전과 저서를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일반 무슬림 당시에 한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들의 생활습관도 이미 한화(漢化)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아랍어 판 꾸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수피주의<sup>3)</sup>의 영향을 받아 출세적인 무슬림이 있었으며, 또한 민간 신앙과 결합된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도 많았다. 그들은 자신이 이해한 이슬람만을 진정한 이슬람으로 간주하면서 종파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는 이슬람의 교리가 원의에 부합하는지 검증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 행위는 당시 중국인에게 비난과 조소꺼리가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중국무슬림이 중국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족의 이슬람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슬람이 중국인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고, 또한 그 사상을 그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슬람이 중국전통문화가 절대적으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뿌리를 내려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통사상을 빌려서 해석할 필요가 있었다. 이슬람이 중국에 유입된 이후 1000여 년 동안 번역과 해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슬람이 중국에서 오래 동안 전개되면서 통치 계급의 특별한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한족과 특별한 충돌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무슬림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하였고, 한족 또한 그들의 신앙에 대해 별다른 반감을 사지 않았다. 그러나 무슬림이 한족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이슬람을 중국 문화를 빌려서 해석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전통사상 중에서도 당시의 주류사상인 유학에 근거해 이슬람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와 같이 이슬람의 번역 작업은 이슬람 내부에서 이슬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학의 관료들이 이슬람에 대한 무지와 왜곡을 해소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무슬림 내부에서 한문 번역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

정통이슬람 교리에서는 아랍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이슬람 내부에서도 번역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누어져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그들은 번역에 반대하는 학파를 ‘경전파(經典派)’로, 번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파를 ‘한학파(漢學派)’로 불렀다. 경전파는 알라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코란이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랍어 경전을 절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들은 한자어로 번역된 불경을 언급하면서 “불경이 중국에서 번역되면서 그 원의를 잃어버렸지만, 자신의 경전은 번역하지 않

2) 『清真釋疑』 <胡匯源序>, 雖遵用教典, 斤斤勿渝, 而日用. 民尚懽厥宗旨. 己則不信, 人亦疑之. 予自授書後, 行遊四方, 觀教中人士伙矣, 其間如前所陳十常五六, 而天姿秀挺者, 亦間能力自表揭, 號稱宗師

3) 중국에서 수비주의는 원나라에 이미 수피 교행자와 선교사가 중국에 유입되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수피주의자인 할리즈(858-922)는 일찍이 신장 투르판 지역에서 도착했으며, 원나라 이래 수피 교행자와 선교사가 끊임없이 중원지역에 들어왔다. 그들의 포교활동은 각 지역 민간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당시 경당교육을 담당하던 종교지도자 중에는 수피전교사와 밀접한 교류가 있었으며, 어떤 종교지도자는 심지어 외래 수피전교사의 정신지도와 교회를 받기도 하였다. 경당에서 읽은 경전 가운데에는 수비주의 저작이 많았다. 수피주의 영향 아래에서 어떤 경사와 학생은 종교생활에서도 신비주의의 정신수련을 실천하기도 하였으며, 수피주의의 저작은 중국무슬림 지식인에게 널리 유행하였다.

아 잡되지 않다”<sup>4)</sup>라고 하면서 이슬람 경전의 번역을 반대하였다. 그들이 말한 ‘잡되다’의 의미는 이슬람을 번역하면서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통 이슬람은 아랍어 코란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진 것을 원칙적으로 거부하였다.

하지만 한학파<sup>5)</sup>는 코란을 한어로 번역한 것은 잘못(差錯)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왕대유는 경학파의 주장은 이슬람의 대도(大道)에 어긋나는 천박한 주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코란의 문제는 결코 언어문자에 있지 않고 그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상, 관점 혹은 주장에 있다고 보았다.<sup>6)</sup> 그는 꾸란의 글자체가 다르지만 그 이치는 같기 때문에 글자체가 다르다고 이슬람이 왜곡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무하마드 제자들은 그의 말을 잘 암송하기 위해서 석판, 도자기 등에 써 놓았다가 무하마드 사후에 꾸란을 집대성하면서 아랍어로 통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꾸란에는 원래 다양한 문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랍의 여러 종교에서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랍어와 이슬람은 직접적인 관계를 부정했다. 그래서 꾸란을 한자로 번역할 경우 언어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들은 또한 알라가 7세기 무하마드에게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말을 건네고 있기 때문에 알라신의 계시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음에도 아랍어의 경전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슬람의 본의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현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당시 중국 종교지도자들조차도 아랍어나 페르시아어에 능통하지 못하고 이슬람의 교의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전만을 고수하는 것은 중국에서 이슬람을 쇠퇴시킬 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더 왜곡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상황에서는 이슬람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한문을 사용하여 이슬람교의 교의, 교리, 계율을 일반인에게 소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경전을 한어로 번역해 무슬림 내부와 외부에 교리를 쉽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만 이슬람의 중국화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명청시기 무슬람 학자들은 유가의 도리로서 이슬람의 교의와 교법을 해석하고자 노력하면서, 유가의 술어로서 이슬람의 용어를 번역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학풍이 명청시기 이후의 중국무슬림의 학풍이 되었다. 한학파가 한자를 사용해 경전을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전의 원래 의미를 왜곡해도 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당시 이슬람 경전을 한자어로 번역한다고 할 때, 이때의 한자어는 바로 주자학적 용어를 말한다. 그들이 이슬람 경전을 주자학적 용어로 번역하면서 이슬람 경전의 원래 의미를 고수할 수는 없었다.

무슬림 학자인 왕대유는 이슬람 경전은 유교와 이슬람 양자 모두에 정통한 사람이 번역을

4) 明萬曆三十七年(1609年),「福建泉州 重建清淨寺碑」, 禪經(佛經)譯而經雜, 淨經(코란경) “不譯而經不雜”. (『中國回族金石錄』(銀川, 寧夏人民出版社, 2001. 73-74 재인용)

5) 당시 중국에서 배양된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은 이미 보편적으로 종교 활동과 포교활동에서도 한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어를 통해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인을 ‘한학파’라고는 하지 않는다. 한학파는 한어를 사용해 이슬람 경전을 번역하거나 특히 당시 주도적인 사상인 유학에 근거해 이슬람을 해석해야 함을 주장하는 무슬림 지도자로 제한해 말하였다.

6) 王岱與,『正教真詮, 清真大學, 希真正答』, 吾教有一百一十四部勅降尊經, 理雖一貫, 文字不同, 未聞字體殊別, 便即謂之哈他者, 此不明一也. 且各國各方, 正偏皆有, 有教道殊, 而文字一者, 有教道與文字俱殊者, 如天方國文字一也, 而有七十余教, 除清真之外 盡屬哈他, 足見哈他不在文字而在道理, 此不明二也.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1987, 284-285 재인용)

해야 하며, 유교와 이슬람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상호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랍어의 경전과 한자는 상이한 언어체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어를 사용해서 경전을 해석하려면 아랍어와 한어 모두에 정통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슬람 경전을 아는 사람은 한문에 능통하지 않고, 학문을 익힌 학자는 이슬람에 무지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슬람의 진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뿐만 아니라 유학에 대한 소양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중국무슬림학자들 대부분은 어릴 때 가학으로 천방(天方, 이슬람)의 경전을 공부하였고 자라서는 유학을 공부하면서 양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이슬람을 한자로 번역되면서 ‘유교- 이슬람’이라는 독특한 종교철학을 확립하였다.